

[정규과정] 공연기획과 홍보마케팅 실무

주제 : 공연장에 대한 이해와 대관방법 및 절차



- 공연장의 이해



○ 공연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술가, 관객 그리고 무대이다.

무대는 예술가와 관객을 하나로 묶어 실재적인 문화 행위를 완성시키는 장소이다.

공연기획자 관점에서 무대는 보다 광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공연이 표현되는 공간인 무대를 포함해

관객과 배우가 만나고 동호인들이 교류하며 부가적으로 상업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공연장’이 포괄적 개념에서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공연의 준비, 객석, 티켓판매, 공연안내, VIP 접객, 부가상품의 판매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

○ 공연 예술은 영상, 음향, 조명, 무대 장치 등 현장 연출의 완성과

예술성, 화제성, 사회성, 흥행성 등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적 성과를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연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공연장의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연출 구현의 가능성은 물론 모객과 서비스, 기념품 판매, 홍보 등

사업적 흥행 여부도 공연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연장에 대한 고려와 확보는

기획 과정과 거의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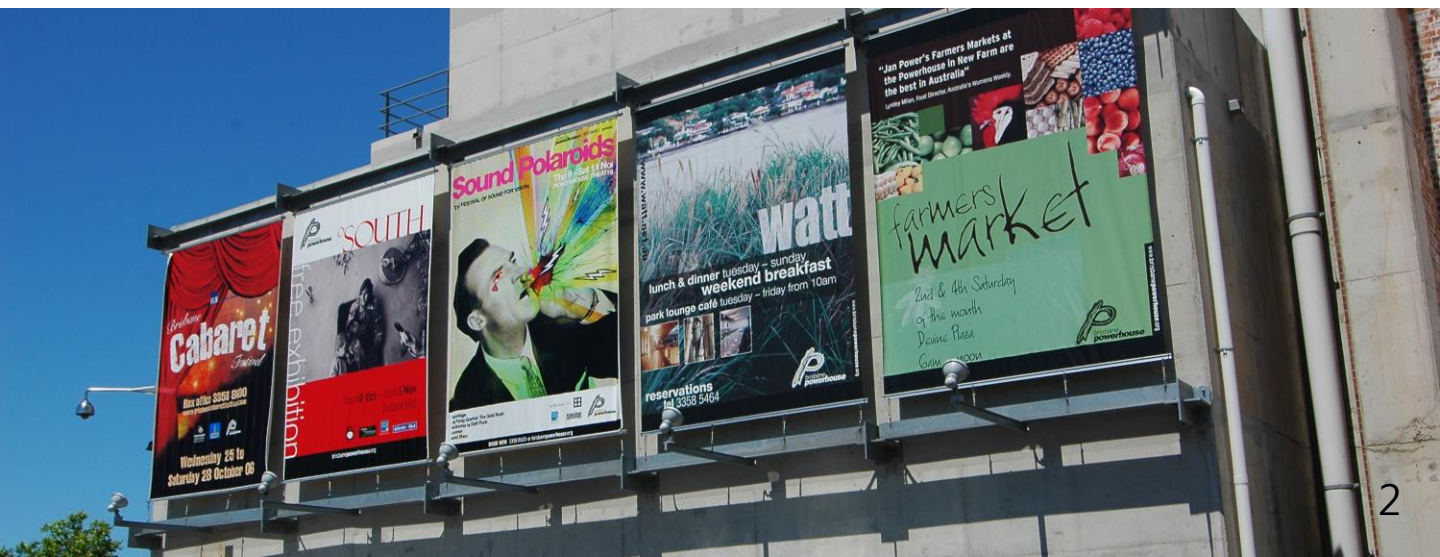
- 공연장의 현황

○ 한국 공연장의 변천사를 보면 1960~1970년대 중반까지 행사를 위주로 하는 무대로 강당 수준인 ‘시민회관’ 시대,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 행사와 공연 예술을 병행하는 다목적극장인 ‘문화예술회관’ 시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예술의전당 전관을 개관하면서 ‘예술의전당’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건립되는 공연장은 지역명 뒤에 ‘예술의전당’ 또는 ‘문화예술의전당’, ‘아트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요즘엔 지방 대·소 도시들에 옥내·옥외 공연장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있어 무대예술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 공연장은 크게 옥내와 옥외로 구분할 수 있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대표적인 옥내 공연장으로는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을 들 수 있고, 옥외의 것으로는 올림픽경기장, 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관람 시설이나 광화문 광장, 한강 고수부지 등 대규모 공간에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등록 공연장은 약 1,024개에 이른다.(2016년 말 기준)



- 공연장 대관 방법과 절차

- 공연장을 일정기간 사용료를 주고 빌려 사용한다 하여 통상 ‘대관(貸館)’이라고 하고, 그 사용료를 ‘대관료’ 라고 부른다.

대관료가 마련됐다고 원하는 대로 대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연장 측의 일정이나 승인 조건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남아있다.

특정 타깃의 공연을 해야 하거나,

일정 목표의 모객이 필요할 경우에 대관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 대관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크게 기획자 내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내적 요소와 주어진 조건인 외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내적 요소에는 작품의 규모와 특성, 주요 관객층,

대관료 예산 및 예산 대비 효용가치, 예상 티켓 가격 등이 있다.

외적요소로는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좌석수, 대관가능기간 등이 있다.

예산 설계 중이거나 아직 예산 설계 전이라면 유연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면, 예산상의 비용과 수입을 고려해 잘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접근성(주변환경, 위치, 교통 등), 무대시설(형태, 장비 등),

부대시설(식당, 연습실, 주차시설 등)이 있다.

- 대관 방식에는 정기 대관과 수시 대관이 있다.

정기대관은 공연장 측이 매년 정해진 시기에 내년도 대관공고를 통해 이뤄지는 대관을 말한다.

공연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당해연도 하반기 중반인 8월~10월 사이

대관공고를 한다. 차기 년도 전체를 상하반기로 나뉘서 두 번에 하는 경우도 있다.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남아있는 일정과 정기대관 때 승인 받았으나

기획사의 사정으로 취소돼 발생하는 일정으로 수시로 이뤄지는 대관을 말한다.

이런 대관 방식은 주로 중형(300~1000석)이나 대형(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이뤄지고,

소형(300석 이하) 공연장은 대부분 불 특정하게 수시로 이뤄진다.

○ 중대형 공연장의 경우 대관신청 가능일정을 공고 시에 알려준다.

대형공연장의 경우 자체 기획 공연 일정 및 산하 공연예술단체의 정기공연,
국경일 등 공공행사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런히 연결된 장기일정이 공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민간 운영 시설의 경우 기획사와 제작파트너가 돼 공동제작의 주최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파격적인 장기대관이 가능하다.

소형 공연장 대관의 경우는 단기(1개월 이하), 중장기(1개월~6개월),
장기(6개월~1년), 오픈런(목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공연) 등으로 구분한다.

○ 통상 대관절차는 대관공고→신청접수→심사→결정통지→계약→대관료납부 순서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공지된다.

기획사는 공연작품 개요와 대관신청 등을 기재한 공연장 신청서 양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중대형 공연장의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관이 결정되면 공연장에서는 대관 승인 사항을 대관료 납부와 대관계약 등
주요 이행사항과 함께 공문과 유선으로 통지한다.

대관 승인을 받은 기획사는 대관계약 후 계약서에 적시된 대로 대관료를 납부하면 된다.

○ 대관료는 시설마다 조건과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뮤지컬, 연극, 콘서트, 이벤트 등
장르마다 다르다. 공공시설 공연장 중에서도 국공립공연장이 가장 저렴하고,
민간 시설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중대형 공연장에서는 세트반입과 리허설 등 준비
기간과 본 공연기간, 철수, 야근 작업 등에 따라 대관료를 차등 적용한다.
대관료 외에 공연장에 구비된 조명, 영상, 음향 및 냉난방, 전기 시설 사용 때는
별도의 사용료가 추가된다.

[참고문헌]

- 전PD가 들려주는 뮤지컬 제작기, 2013.. 세창미디어
- 공연 기획 입문, 2015. 11. 1.,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년 등록공연장 현황, 2018.. 문화체육관광부